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발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지역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신뢰받는 소통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쳐 모범적인 의회 상을 정립.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안읍, 행안 선거구 의원인 부안군의회 박병래의원...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신뢰받는 소통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쳐 모범적인 의회 상을 정립.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다.

부안군의회 7대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병래 의원은 짧은 패기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를 통하여 균형과 협력 체제를 강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향상시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의원 상호간 신뢰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도 제278회 제2차 정례 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해 어민들의 반대 여론을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반대 여론 수렴 · 피해상황 파악 후 대책 마련

서림 공원 · 석동공원 · 진동공원 연결... 꽃동산 연차별로 조성 건의

현실에 맞게 수렴하고 어민과 지역주민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부안군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집행부로부터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창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한 해풍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박의원은 부안읍 도심의 유일한 휴식처인 서림공원과 석동공원 · 진동공원을 연결. 야생화 꽃동산과 가로수길 등을 꽃과 나무로 가꾸어 우리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도심 속 마음을 치유하는 쉼 갖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 군민들이 꽃향기를 맡으며 힐링 할 수 있도록 꽃동산을 연차별로 조성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3개 공원을 연결하는 명품 가로수 길을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부안군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농업은 생산 기반 및 시설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며 6차 산업 육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질의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재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2017년도 군정살림 예산을 심의에 싹싹폭락, 어획량 감소 등으로 농어민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 의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의원은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건전하고 내실 있는 부안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리증진,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의 예산 편성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집행부의 적절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박의원은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각계각층과 소통, 공감, 참여 속에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날카롭게 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 민생현장에서 직접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박병래 의원은 “의원은 지역의 봉사자라고 생각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을 구현하려고 노력.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래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홍보대사 안재욱